

다시 푸는 경서

법구경

봉지품(奉持品) ③

所謂仁明 소위인명
非口不言 비구불언
用心不淨 용심부정
外順而已 외순이이

이른바 인명(적목)이란
입 다물고 말하지 않는게 아니라
마음 씩이 깨끗하지 않으면
겉보기로만 유순할 뿐

謂心無爲 위심무위
지행유독 내행청허
此彼寂滅 차피적멸
是爲仁明 시위인명

이른바 마음에 함이 없고
마음과 행이 맑고 텅비어
이 경계 저 경계에 적멸하면
이를 일러 인명이라 한다

所謂有道 소위유도
非救一物 비구일물
普濟天下 보제천하
無害爲道 무해위도

不好行之尊 불우행지존
施燈必得眼 시등필득안

여덟가지 곧은 길(팔정도)이 최상의
길이요
네가지 진리(사성제)가 불법의 자취
된다

방탕하지 않는게 행의 으뜸이요
법을 배풀면 반드시 지혜 얻는다

是道無復畏 시도무부의
見淨乃度世 견정내도세
此能壞魔兵 차능괴마병
力行滅諸苦 역행멸사고

이 도는 다시 두려워 할 것이 없어
청정한 성품보야 세속을 넘고
능히 마구니를 무너뜨린다
힘써 행하면 사된 괴로움 여의리라

我已開正道 아이기정도
爲大現異明 위대현이명
已開當自行 이문당자행
行乃解縛轉 행내해사박

내 이미 바른 도를 열어

방탕하지 않는게 행의 으뜸이요
법을 배풀면 반드시 지혜 얻는다

이른바 도의 경지라 하는 것은
한 물건을 구제함이 아니다
은 천하를 두루 제도하여
해가 없으면 도의 경지라 한다

戒衆不言 계중불언
我行多誠 아행다성
得定意者 득정의자
要由罪損 요유죄손

계행이 많고 말없이
자신의 행이 아주 진실되어
흔들림 없는 선정에 든 이는
달고 달여냄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意解永安 의해구안
莫習凡人 막습범인
使結未盡 사결미진
莫能得脫 막능득탈

뜻을 깨달아 마음의 안락을 구하거나
범인의 행을 익히지 말라
세상 인연 부림이 다 하지 않으면
해탈에 이를 수 없으리라

도행품(道行品) ①

八直最上道 팔직최상도
四諦爲法迹 사제위법적

전과 다른 밝은 길 모두 밝히니
이미 들었거든 마땅히 스스로 행하
라

生死非常苦 생사비상고
能觀見爲慧 능관견위혜
欲離一切苦 욕리일체고
行道一切除 행도일체제

생사는 덧없고 괴로운 것
이것을 비취 볼 수 있으면 지혜가 된
다

生死非常苦 생사비상고
能觀見爲慧 능관견위혜
欲離一切苦 욕리일체고
但當勤行道 단당근행도

생사는 덧없고 텅빈 것
이를 비취 볼 수 있으면 지혜가 된
다

일체의 괴로움 여의려거든
다만 부지런히 도를 닦음이 마땅하
리라

龍眼

“내일하자” 미루다보면

경운스님 (서울 대각사 선덕)

“자기의 본래면목 찾는 공부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작하세요
직접 체달않고는 찾을 수 없어요”

‘종노릇 잘 하려면 열심히 참선정진 하
라’는 은사스님의 말씀을 평생의 화두로
삼고 전국 방방곡곡 선방을 돌며 참선객
으로 살아왔습니다.

내가 자란곳은 원산입니다. 원산은 산
천이 수려하고 아름다운 향구도시지요.
15살때 금강산 신계사에서 서선유스님을
은사로 출가했습니다. 그곳에서 종노릇을
하며 원산에 있는 심산고등학교를 다녔
지요. 고등학교에 다니면서도 화두를 놓
지 않았습니.

참선이란 보통 학교에서 배우는 공부
와 다른 것입니다. ‘가까 거껴’처럼 글자
배우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요. 참선
이라는 것은 심리학도 아니고, 철학도 아
니고, 뭐라고 할까, 부처님 되기 위해서
하는 공부입니다.

부처님 되기 위해서 하는 공부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렇게 알면 됩니다. 해인
사에 팔만대장경 있지요. 그것은 석가세
존이 부처님 되신 후에 하신 말씀을 기
록한 경전입니다. 하지만 법부에 불과했
던 그 싯달타가 부처님 되기 전부터 한
것이 참선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참선을
해서 깨쳐가지고 팔만대장경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참선은 곧 부처님의 마음이고,
팔만대장경은 부처님의 말씀이고 그
렇습니다. 그렇게 알면 됩니다.

문위하일수록 참선을 왜 하는가 라는
근본적인 문제보다는 참선을 어떻게 하
는 것인가 하는 방법에 대해 더 이야기
를 듣고 싶어합니다. 참선을 잘하기 위한
요령은 없습니다. 백척간두에서 한발 나
아가듯 하는 절대적이고 간절함으로 나
아가야 하는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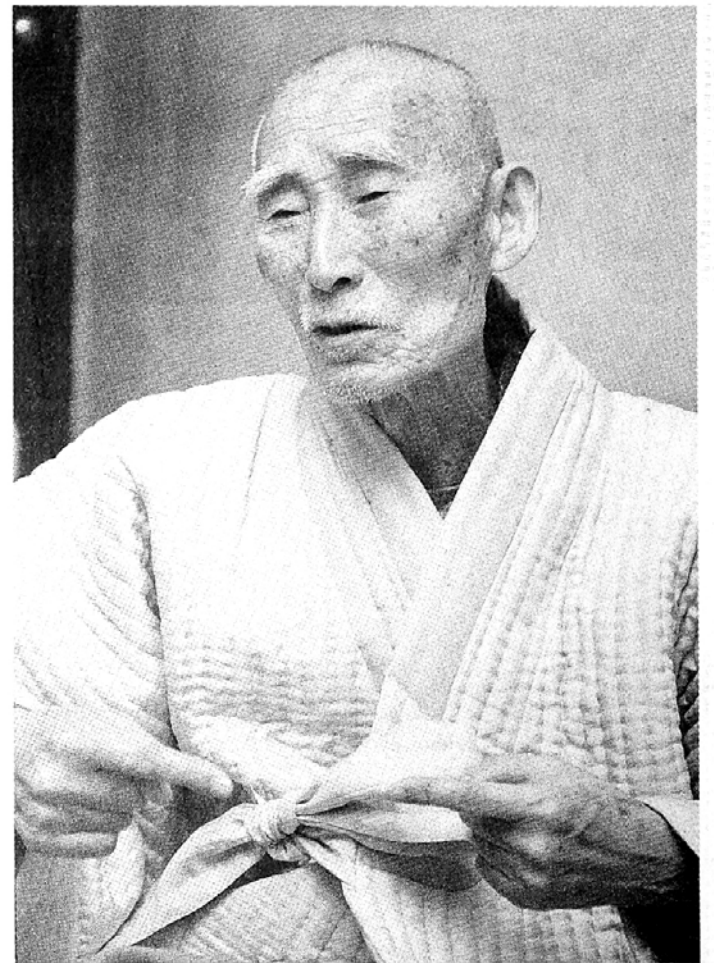
내가 지금 몸시 배가 고파요. 배고픈
내가 밥을 먹어야 내 배가 부른 밥이지
요. 내가 몸시 배가 고프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밥을 먹는다고 내 배가 부를까
요? 아니지요. 물 마시는 것도 마찬가지
예요. 물을 직접 마셔본 사람이 물이 찬
가 더운가를 알지, 옆의 사람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선수도의 방법도 본
인만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본인이
안다고 하는 것도 다 모르는 겁니다. 참
선할 때 걸음으로 보기에야 가벼움을 들고
우두커니 앉아있을 뿐이지만, 참선은 바

로 정신으로 하는 것입니다.

부처를 이룬다는 자부심으로 용기를
갖고, 포기하지 말고 정신을 가다듬고 당
당하게 참선에 임해야 합니다. 부처를 이
룬다는 결심을 가지고 정신을 바르게 길
러가면 선정바라밀이 됩니다. 정신을 한
곳에 집중하면 흐트러진 정신이 맑아지
는 것을 느낍니다. 부처님께서도 이 선정
을 위해 오백생동안 간절히 노력해서 이
루셨습니.

‘이심전심(以心傳心)’이라는 말도 아시
지요. 마음을 써서 마음으로 전하고 마음
으로 받는 것이 참선이고, 귀와 입을 통
해서 배우고 듣고 하는 것은 단순한 학

- 약 · 1907년 12월 경남 마산 생
· 1922년 금강산 신계사에서 선유
스님을 은사로 득도
· 1934년 월정사에서 한암스님을
계사로 비구계 수지
· 1969년 의령 관음사 주지 역임
· 1979년 <해동불조원류> 편찬
· 현 종로 봉익동 대각사에 주석



참선에 요령은 없습니다
밥먹듯 생활속에서 해야지
구두선에 머물면 구업만 지어요

업일 따름입니다.
삼시 밥먹듯 일상생활속에서 늘 행하
는 것이 참선입니다. 특히 참선을 할 때
시간에 얽매어서는 안됩니다. 밤에 자면
서도 참선을 해야되고, 죽을 때에도 참선
을 해야되는 겁니다.

요즘은 무슨 유행처럼 참선이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
다. 참선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무작정 참선을 권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
입니다.

지극한 참선수행을 했던 옛날 선사들
은 헛소리 않고 앉습니. 하지만 요즘

사람들은 걸음으로는 과학이나 문명이니
하면서 똑똑한 것 같지만 실상은 너무나
어리석어서 자기 자신에게 속고, 또 속는
줄도 모르고 앉아서 허송세월만 보내고
있습니. 참으로 큰 문제라 아닐 수
없어요.

참선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참(參)자 선
(禪)자 두 글자의 뜻도 모르고 권하는 가
하면, 참선하는 이도 이 무글자의 뜻이
어디있는지 의미는 고사하고 자기가 하
는 말을 알고 하는 이도 드물지요. 선을
확실히 모르고 선을 하느니, 선을 닦느니
하는 말은 구두선(口頭禪)이라 해서 잘

못하면 구업이나 짓고, 선하고는 거리가
아주 멀습니.

금강산 신계사에서 고등학교를 마치고
마하연에서도 잠시 머무르다가 오대산으
로 합경남북도 평안도를 두루 돌아다니
며 수행자로서의 초년시절을 보냈습니.
그러다가 6·25전쟁때 인민군에 쫓겨 내
려온 이후 양산 통도사로, 해남 대운사
로, 구례 화엄사로, 전국 곳곳의 선방을
돌며 수행을 거듭했지요.

그러던 가운데 용성스님을 만났습니.
도봉산 망월사에서 2년반을 시봉을 했습
니다. 그때 내나이가 20살쯤 됐었으니까
벌써 70여년전 일입니다. 히히...

지금 내가 머물고 있는 대각사는 대선
객 용성스님이 지은 절입니다. 3·1운동
때 민족대표 33인중의 한분이셨던 스님
은 이 종로 봉익동에 대각사를 세우고,
대중포교에 힘쓰시는 한편 선방을 열어
많은 남자들을 이끌어 가셨지요. 독립운
동을 하다가 체포되어 서대문 형무소에
서 3년간의 옥고를 치르고 출옥하신 후

제14회 선우도량 수련결사
초기 불교청신과 오늘의 한국불교
귀의 심보하옵고, 여러 스님들의 관심 속에서 선우도량 수련
결사가 14회를 맞습니다.
진법·수행·연구의 장에서 바쁘시겠지만 수회 동참하시어 자리
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 기조강연 : 철오스님 (사천 구룡사)
제1주제
초기불교 수행자상과
한국불교 수행자의 새로운 모색
· 발제자 : 정각스님(중앙승가대 불전국역연구소)
· 논평자 : 종명스님(능인선원)
제2주제
초기불교의 시대적 역할과
한국불교의 시대적 과제
· 발제자 : 오성스님(제주 백련사)
· 논평자 : 효림스님(파주 보광사)
● 선우의 현장결사 : 통도사 부산포교원 심산스님
● 목 강 : 고 은
● 일 시 : 불기 2542(1998)년 2월 23일~24일
(음 1.27~28)
● 장 소 : 지리산 실상사
● 준비물 : 대가사
● 동참금 : 3만원
● 문의 및 안내 :
서울 종로구 정진동 208 금강빌딩 202호
선우도량 (02) 736-0386~7
지리산 실상사 (0671) 34-3757
대한불교조계종 선우도량
공동대표 해담·도법·현봉 합장

불교인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 연구원
안녕하십니까.
戊寅年 새해 인사드립니다.
남마다 좋은 날이 되소서.
내외적으로 어려운 시절입니다.
지혜의 등불을 밝히고
오늘의 아픔을
내일의 꿈과 희망으로 엮어
1998년을 찬란한 여명으로 피어내길
모든 불자님과 함께 발전합니다.
왕장 이영숙(본명)
大幸, 초·재혼 신원
확실하고 직접 확실한
미혼남녀 현영,
지방에 계신 불자들은
서신과 전화로 연락
바랍니다.
\* 인생문제
특별상담합니다!
-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현대정보 결혼연구원
왕장 이영숙 합장(법명:無生子)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5가 18번지 영신상가 3층 317호
대표전화 : (02)634-4910~2
(011)288-4910

김재일법사 불교교리강좌개강(봄반)
본회에서는 불교를 처음 찾는 분이나
불교기본교리를 알기쉽게 공부할
제 57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강의개요
1.강의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2.교육장소 동산법당(안국동 로타리)
3.개강일시 1998년 3월 4일(수)오후7시
4.교과목 불교의정의, 불교의특징, 불교의분류,
삼보설, 삼과설, 삼법인설, 연기설, 사
제설, 수도론, 번뇌론, 반야심경 불자
의 실천덕목, 불교상식 및 사찰예절
5.지도법사 김재일 법사
6.교 재 수강신청자에게 입학당일 제공
(불교의기본교리, 교리노트)
7.입학금 30,000원(반명함관 사진2매)
8.지원자격 제한없음
\* 문의 : 사무국 TEL: 732-1206~8
서울 종로구 견지동 13번지
대한불교
조 계 종 동산반야회

춘천 옥산가옥의 신비!
玉촌합원사·건강防禦服
99.9% 54.8PPM
몸을 사용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玉으로 온몸을 꼭 감싸 주는 것입니다.
목이불과 함께 빅히트 상품
● 피로감 감소, 병후회복
회춘의 현저한 차이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 유행전자와 방이에 특효
입니다.
● Kirilan+Bio=건강신물질
이 뜻을 입으면 중국형제 유승
의 金線玉衣를 입은 것과 같은
환리입니다. (男女각각)
각종 성인병과 질병에 사용되어온 고대 중국의 신강성 백옥은 수백년전에
생산이 고갈되고 현재는 춘천玉山家玉만이 세계 유일한 것이 되었습니다.
사용시 주구 손저로 2가 50번지
(트렁크 벽화실 지하상가 유치로유입구)
777-0105 (우편번호가)